

‘임 행진곡’ 대중화 국정과제 연계 시책 추진

광주시 신규 시책 38건 발표

광주형 일자리·치매안심센터 등 중앙정부 공약 이행 건의 활동

광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춘 신규 시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27일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될 국정과제와 연계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규 시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5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연계 시책 보고회’를 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공약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국정과제에 지역 공약이 대거 반영됨에 따라 그동안 청와대, 중앙부처 대상의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건의 활동과 내년도 국비 확보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전략 등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시는 28개 세부과제로 분류한 지역공약을 단기, 중기, 장기추진 과제로 재분류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해 발굴된 신규 시책 38건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이들 과제의 실행성과 재정확보 방안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최종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신규 시책의 주요 사업 목록은 ▲지역대학 연계 ACC창제작 협업

프로그램 운영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치매안심센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광주형 직접민주주의 모델 구현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레독스허름전지 소재 부품 기업지원 ▲노사상생 일자리 적합 사업장 발굴 ▲청소년성평등적 진로지원 ▲사회혁신파크 조성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이 자리에서 윤장현 시장은 “호남이 창출한 정권이 들어섰고 지역의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된 만큼 자신감을 갖고 임해 줄 주기를 바란다”면서 “심화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철저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4차 산업이 주도하는 미래에 살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은 광주를 떠날 수 밖에 없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온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민간부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국정과제가 발표된 직후부터 지역공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당정협의회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지역현안 등 국정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구, 충장동 등 문화예술특구 추진

공청회서 주민 의견 수렴

광주시 동구가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문형·체류형 문화예술 소비인구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구 일원을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해 특화사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18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특구 대상지역은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 일원의 99만1759㎡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이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되면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의 차랑 통행 등의

제한조치 ▲도로점용 허가조치 ▲야외전시 및 활용시설 관련 가설건축물 설치 등이 용이해진다.

이와 관련 동구는 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25일 벤처빌딩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조계현 한국지역산업연구원장의 특구계획(안) 설명에 이어 김경수, 정용기 전남대 교수의 특구지정에 따른 문화예술 발전방안, 특구지정 사후관리 및 사업화방안에 대한 발표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동구 관계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특구를 조성해 쇠락한 동구의 부흥을 이끌자는 취지”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광주시와 정부부처에 특구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마당을 나온 암탉’ 저자

황선미 작가 9월25일 강연

산수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시립산수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황선미(사진) 동화작가의 강연회와 캐릭터 석고 방향제 만들기, 툯대 디자인 전시회 등 다양한 독서 행사를 제공한다.

오는 9월 20일에는 생태동화작가 권오준과 함께하는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5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권 작가는 ‘날아라 백백아’, ‘우리가 아는 새들’, ‘우리가 모르는 새들’ 등의 저자다. 자투리 천으로 ‘나만의 브로치를 만들기 위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실’이 5층 사회교육실에서 열린다.

이어 25일에는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동화작가 황선미 씨의 강연회 ‘만들하는 작업실’이 5층 다목적실에서 ‘시인이 읽고 싶은 책 100선’을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앞서 16일에는 향기있는 캐릭터를 이용한 ‘석고방향제 만들기’가 1층 북스타실에서 열리고, 27일까지 이태경 작가의 ‘길, 밝히다’ 주제의 툯대디자인 전시가 미니 갤러리에서 열린다.

미술특화도서관인 산수미술관을 알리는 시간도 마련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양초롱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가 총합예술인 영화를 통해 각 시대별 대표 미술가의 삶과 작품 등을 재조명한다.

문의는 산수도서관 디지털 자료실(062-613-7825), 어린이실(062-613-7828, 7829) 등으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



월드뮤직에 흠뻑 빠진 광주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2017아시아문화전당(ACC)월드뮤직 페스티벌’이 25일과 26일 이틀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가운데 25일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린 핵오밴드 공연에 많은 관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북구, 10월2일까지 청렴정책 공모

광주시 북구는 27일 “반부패·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 청렴실천 협의체 구성, ‘청렴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2일까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을 수립·추진을 위해 직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반부패·청렴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부패발생 예방을 위한 기존 정책개선안

이나 신규제도 제안 등 청렴아이디어, 지역 사회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방안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또는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우편, FAX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오는 12월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 등급에 따라 상장과 상금(금상 40만원·은상 30만원·동상 20만원·장려상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달까지 북구, 광주지방식품의

약안전청, 북부경찰서, 북구소방서,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 5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청렴실천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협의체의 주요 활동으로는 반기별 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익신고 및 부패 행위 신고 활성화 등 상호협력, 청렴 우수사례 성과 공유와 각종 청렴행사 공동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20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을 주제로 한 공연, 전시,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김용희기자 kimyh@

“모유 수유로 건강한 우리 가족”



광주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광주시가 모유 수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개최한 ‘제8회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에서 김리유(여·6개월) 아기가 대상에 선정됐다.

《사진》

시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간호사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생후 4~6개월의 모유 수유아 83명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상무리조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렸다.

대상과 함께 대한간호협회장상 1명,

심사위원장상 1명, 으뜸상 3명, 버금상 6명, 슬기상 12명 등 총 39명의 아기가 본상을 수상하고, 이의 참가자는 기쁨상을 수상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아동간호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모유수유로 자란 4~6개월 아기의 건강 상태, 신체 계측, 모유 수유 실천 정도 및 모아 애착 등을 평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유 수유 사진 전시, 이유식 상담 및 보건소별 모자보건 사업 홍보, 생후 6개월 이후 모유 수유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경관위원회 위원 9월7일까지 공모

광주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경관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관법령,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해 광주시 경관위원회 위원 23명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경관,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농업, 디자인, 옥외광고, 미술색채, 조명, 시민단체 등이다. 응모자격은 대학에서 관련 조교수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 기사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윤현석기자chadol@

경매물건 추천!

- 사건번호 - 2016 타경 14193
- 임야 29831평, 주택 53평
- 매각기일 - 2017년 9월7일(목)
- 최저 입찰가 - 9억 60만원
- 태양열, 펜션, 요양(병)원 등 모든 개발가능
- 명도 간단 (이해관계인 없음)
- 대출 80% 가능
- 차후 15억이상 매매 가능 문의. 오천경매 H. 010-3605-5000

